

혜안과 열정으로 건설산업의 브레인 역할 지속하길

유일호 |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출범한 1990년대 중후반은 건설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한 산고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건설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나라 안에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의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의 시대,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서 국내 건설시장은 문빔장을 활짝 열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상에서 건설업계가 생존 전략을 모색하던 때에 탄생한 산연은 건설산업의 브레인, 즉 싱크탱크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며, 지난 20년 간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 발전에 건설산업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우리 건설인들의 눈물과 땀에 젖은 거친 숨결이 스며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SOC 시설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온 주택·생활 인프라 하나하나에도 우리 건설인들의 정성이 녹아 있

습니다. 아울러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해외건설도 경제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등 글로벌 건설물들을 우리 기술진의 손길로 만들어냈으며, 그동안 1만 건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여 누계 7,00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경제 발전의 만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공과 성장에 안주해 있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산업 환경 역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낱알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건설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가려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미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건설 수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첨단 건설 기술 개발, 타 분야와의 융복합, 고부가가치 분야 집중 투자, 일자리 창출, 국민 행복 제고 등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의 미래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이고, 건설산업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를 담아낼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을 고품격으로 빚기까지는 온고지신의 혜안과 치열한 열정, 창의적 발상이 필요합니다. 스무 살 청년, 산연의 역량과 투자를 기대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CERIK